

문화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된 목포 광명원 핸드벨 연주단 '소리모아'는 지난 7월 필리핀에서 공연을 갖는 등 다양한 연주회를 열고 있다.



목포 광명원 핸드벨 연주단의 '필리핀 여행'

지난 7월 지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목포 광명원(원장 하재룡)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난민처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유람이 아닌, 어엿한 '연주여행'이었다.

장애인 19명으로 구성된 핸드벨 연주단 '종소리 모아'의 연주는 10~1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한인연합교회 등 7곳에서 진행됐고, 해외 교포와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사랑의 종소리'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비롯해, '희망의 속삭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고, '7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코너에서는 '징글벨' 등 흥겨운 캐롤을 들려줬다.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제대로 의사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슴으로 들려주는' 연주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고, 공연 후에는 기립박수도 쏟아졌다.

광명원은 핸드벨 연주단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05년이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광명원측은 '핸드벨 연주단'을 만들기로 하고, 아산복지재단에 사업을 신청했다. 이어 광명원 관계자들은 동아인재대 하수미(55) 교수를 찾아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명원을 방문했던 하교수는 조금 당황

지적·시각장애인 19명

5년여 갈고 닦은 연주 실력

교포·현지인 등에 감동선사

하수미 교수 '사랑의 지도'

스러웠다.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글을 모르고, 계이름을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감각 깜빡 놀라며 자신을 피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우선 계이름을 가르치는 게 첫선무였다. 초창기 1년간 매일 매일 광명원을 찾았던 하교수는 아이들의 기습파에 '도'·'데'·'미' 등 계이름을 써서 부치고 '손들기'를 반복하면서 각 음계를 인지 시켰다. 수십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각각의 음을 알게 됐고, 3개월이 지난 후 장난감 핸드벨로 '학교종'부터 연주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미국에 주문한 '진짜 핸드벨'이 도착하자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기에 반복 연습밖에는 길이 없었다. 피나는 연습 끝에 이제는 성가곡, 클래식, 민요, 동요 등 레퍼토리가 100여 곡이 넘고 1시간짜리 단독 공연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됐다.

2006년부터 목포 복음교회, 영암고, 나주 종합장애인 복지관, 광주 등 각지에서 공연



이 이어졌고, 올해는 해외공연도 다녀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주머니에 오랫동안 넣어둬 이미 녹아버린 초콜릿이나 사탕을 제 손에 꼭 쥐어주기도 한답니다."

'학교종'을 연주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클래식곡까지 연주하고, 또 틀린 부분까지 지적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 너무 감사하죠."

연주단과 동고동락한 하교수는 단원들의 성장된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광주수아이여고 3학년 때 호남예술제 최고상을 수상하며 음악가로 꿈을 키운 하교수는 조선대 음악교육학과 졸업후 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아 활동했으며 '남동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목포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하교수는 전국 시립합창단 가운데 유일한 여성지휘자이기도 하다.

'소리모아'는 오는 22일 강진 미량항 토요음악회, 10월 충남 공연을 갖고 첫번째 정기연주도 여는 등 연주 일정이 빠곡이 채워져 있는 '인기 연주단'이다.

'소리모아'는 이제 색막한 세상에 따뜻함과 위로를 안기는 '사랑의 전령사'로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LCD로 되살아난 '인왕제색도'

한-튀니지 수교 40주년 '현대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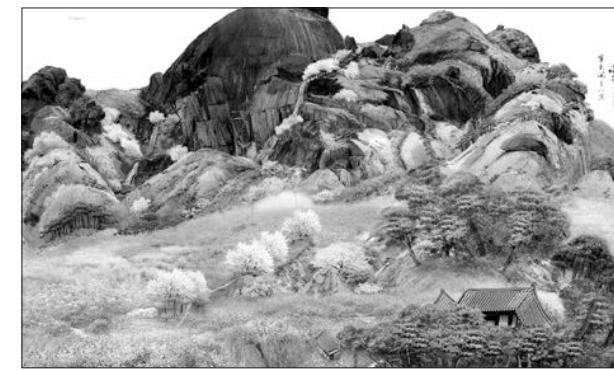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 작품 전시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씨가 오는 9월 1일~30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한-튀니지 수교 40주년 한국현대미술전'에 참가한다.

튀니스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배병우, 김종만, 김택상, 박선기, 김수강씨 등 한국의 대표작가들이 참여한다.

10여 년째 독특한 영상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고전 작품에 움직임을 가미한 미디어 작품인 '신·인왕제색도'와 '달향아리 풍경' 등을 전시한다.

'신·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그린 산수화 '인왕제색도'를 토대로, 그림 속 나무에서 꽂이피고 새가 날아다니게 한 작품이다. 또 '달향아리 풍경'은 화면 속 호랑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신·인왕제색도'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출신으로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또 내년에 프랑스 풍피두센터 필름 비디오아트전,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미디어아트전 등에 참가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항아리·등잔 옹기종기 다 모였네

함평 잠원미술관

20일까지 '옹기전'

함평 잠원미술관은 오는 20일까지 옹기종기 전시에서 고전 기구와 함께 옹기 만들기 프로그램도 열려진다. 문의 061-322-6710.

다. 항아리, 등잔, 좀두리, 지통, 굴뚝 등 토속적인 분위기의 물건 풍기는 옹기 작품이 망라됐다.

이들 작가들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공방 '창 아트'에서 다양한 생활용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이를 작가와 함께 옹기 만들기 프로그램도 열려진다. 문의 061-322-67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항아리와 잔'

월간 '문화재 사랑'

국제비즈니스 상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발행하는 문화재전문 월간지 '문화재 사랑'이 2009 국제비즈니스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사외보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화재 사랑'은 '이달의 문화재 특집', '만남과 사색이 문화재 기행',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등 문화재 각 분야를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문화유산해설사와 책자를 원하는 일반 국민에 배포하며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도 원문을 무료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치 이야기 들려주세요"

대동문화재단 1,000만원 고료 온라인 공모

광주김치문화축제준비위원회와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은 2009 광주김치문화축제(10월 23일~11월 1일)를 앞두고 1천만원 고료 김치 스토리텔링 '아주 특별한 김치 이야기' 온라인 공모를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동적 이었던 김치의 맛과 멋 이야기, 김치의 새로운 발견 체험, 이웃 사랑을 김치로 실천한 이야기, 해외에서 만난 반가웠던 김치 이야기 등

을 체험 수기나 현장 이야기 형태로 원고지 8~16매 분량으로 작성,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www.kimchi.kwangju.kr)에 올리면 된다.

대상 등 수상작에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수상작 22개 작품은 9월 말 발간되는 작품집 '아주 특별한 김치 이야기'에 실릴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동적 이었던 김치의 맛과 멋 이야기, 김치의 새로운 발견 체험, 이웃 사랑을 김치로 실천한 이야기, 해외에서 만난 반가웠던 김치 이야기 등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 분	일 정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 수업기간	2009. 9. 4(금)~2010. 2. 27(토) (6개월/24주)
• 수 강 료	₩298,000
• 모집인원	1단계 금요일/토요일 반 선착순 각 20명
• 수업시간	매주 금, 토요일 9:10~13:00
•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062)950-3584, 3585 • 이·H.P: 011-614-4160 •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개강일시	2009. 9. 31(월) 9:10 2009. 8. 31(월) 13:4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수 강 료	₩300,000
• 모 집 인 원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수 업 시 간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시)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062)530-3873~5 • H.P 010-2611-1171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 13,200m² (약 4,000평)

■ 건물 : 6,600m²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m² (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m² (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기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3617-881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